



사실상 2개월간의 성적만 반영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 데뷔 무대 돌풍을 일으켰던 김우영, 김민호, 이재림 등 선발급에 남아있던 13명 신인들 중 무려 9명이 우수급으로 승급해 이들이 앞으로 보여줄 활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25기 9명 우수급 승급... ‘새내기’의 반란

기대주 김우영 천신만고 끝에 승급
훈련원 최하위 김민호 반전 드라마
이재림·김용규 등도 우수급에 안착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의 성적을 토대로 2020년 하반기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월 23일부터 경륜이 중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개월간의 성적만 반영됐다. 이번 등급 조정은 데뷔 무대 돌풍을 일으켰던 25기 신인들이 무더기로 우수급에 승급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미 2월에 특별승급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선발급에 남아있던 13명의 신인들 중에 무려 9명이 승급했다.

25기 신인 중 선발급 배정자 17명(우수급 배정 4명) 중에 가장 높은 훈련원 순

위 5위를 기록했던 김우영(27세, 수성)은 천신만고 끝에 승급에 성공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기존 선배들을 제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1월 10일 광명 데뷔전에서 선행 3착에 그치더니 다음 날은 젓히기 2착, 일요 결승에서는 4착을 기록했다. 훈련원 순위가 낮았던 동기생들보다도 출발이 좋지 못했다. 2주 후 출전한 창원에서도 예선 선행 2착, 결승 마크 3착에 그치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반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려 속에 다시 광명에 출전한 김우영은 첫날 우수급 출신 정승(14기)을 막아내는 젓히기로 첫 승에 성공했고, 여세를 몰아 토요일 선행 우승, 일요 결승 추입 우승했다. 열흘 후 창원으로 넘어가서도 가뿐히 2승을 보태며 5연승을 기록하며 휴장을 맞이했고 승급에 성공할 수 있었다. 김민호(28세, 김포)는 ‘꿀찌’의 짝짝 반

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25기 최하위인 21위로 훈련원을 졸업한 김민호는 동기생들에 비해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존 선발급 강자들이 몰려 있던 데뷔전을 선행 이번 우승으로 장식했고, 다음날에도 본인보다 훈련원 순위가 높았던 동기생 노형균을 3착으로 밀어내고 2연승에 성공했다. 이후 5승을 더 챙긴 김민호는 총 10회 출전해 1착 7회, 2착 2회, 3착 1회로 승률 70%, 연대율 90%, 삼연대율 100%를 기록하며 승급했다.

1월 17~19일 데뷔전을 치른 이재림(24세, 김포)은 빠른 시속과 묵직한 뒷심을 자랑하며 1착 2회, 2착 1회로 승급했다. 출전 횟수가 3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부른 판단은 이르지만 3일 내내 우수급 강자들 못지않은 11초4대의 200m 선행 시속을 선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수급에서도 선행력이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외에도 김용규(26세, 김포)는 총 10회 출전에서 1착 6회, 2착 1회, 3착 3회, 승률 60%, 연대율 70%, 삼연대율 100%를 기록했다. 김호준(24세, 상남)은 2월 9일 창원 결승 우승을 포함해 총 10회 출전해 1착 6회, 2착 2회, 3착 2회, 승률 60%, 연대율 80%, 삼연대율 100%를 보였다. 노형균(25세, 수성)은 총 9회 출전에서 1착 3회, 2착 5회, 3착 1회, 승률 33%, 연대율 89%, 삼연대율 100%로 달성한 유망주다.

박진수 경륜박사 팀장은 “이미 특별승급한 안창진, 김흥기, 한택희, 김민수를 포함해 이번 등급 조정으로 우수급에 진출한 대다수의 신인들은 선배 기수들보다 피지컬이 뛰어나고 기록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여러 명의 선수들이 우수급 강자로 활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해드려요”

국민체육진흥공단, 27일까지 아이디어 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함께 스포츠산업의 창업 붐을 조성하고 혁신 주도형 스타트업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0년 스포츠산업 창업 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

스포츠산업(시설, 용품, 서비스) 분야의 독창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은 누구나(팀은 3인 이내) 참여할 수 있다. 단, 현재 공단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유사 아이템으로 다른 대회에서 수상이력 있는 자는 제한된다.

참가신청 서류접수는 27일까지이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은 30일 예정인 창업멘토링데이에서 아이디어 고도화, 실용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후 중간평가를 통해 상위 10개 팀을 선발하고, 최종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팀(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팀(200만 원), 장려상 3팀(100만 원)을 선정한다. 수상 팀은 향후 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입상한 3팀은 9월부터 12월까지 평균 3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및 창업보육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창업 올림피아드 홈페이지(kspo.kma.or.kr) 및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공단, 경기모금회에 사회공헌기금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400만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했다. 이번 사회공헌기금은 전국 17개 경륜경정 지점이 각 200만 원씩을 모아 기부금으로 조성했다. 기탁된 성금은 17개 지점 인근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주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과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경륜경정 영업총괄팀 관계자는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이웃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륜경정은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기 보급, 수상스포츠교실 운영, 사회적 약자 자립 및 청소년 미래 진로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육, 문화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천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경륜·경정 최대 장외발매소 ‘장안지점’ 확 바뀐다

중독 예방 상담시설 ‘희망길벗’ 증설
지정좌석 98석→202석 확장해 쾌적

장안지점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7개 장외지점 중 가장 큰 규모인 장안지점을 재단장 중이라고 밝혔다.

장안지점은 1999년 개장해 경륜경정 사업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힘써왔다. 하지만 베팅 시설 위주의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기금조성총괄본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설환경 개선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2, 3층은 리모델링을 완료해 재개장 시점부터 고객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4층과 5층은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안지점 시설환경 개선공사 총공사비는 79억



재단장 한 장안지점 출입구

원 가까이 소요된다.

특히 재단장하는 장안지점은 정부의 장외지점 건전화 정책방향인 과일일 원화 공간과 중독 예방 상담시설인 ‘희망길벗’을

증설했다. 또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사회 기여 기능을 강화한다. 지정좌석 공간을 98석에서 202석으로 확대하고 리모델링하기 전 2804석이었던 전체 좌석을 2208석으로 줄여 고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고급화했다.

경륜경정 시설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고객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경륜·경정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재단장한 장안지점은 앞으로 고객과 지역사회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향후 재개장을 대비해 방역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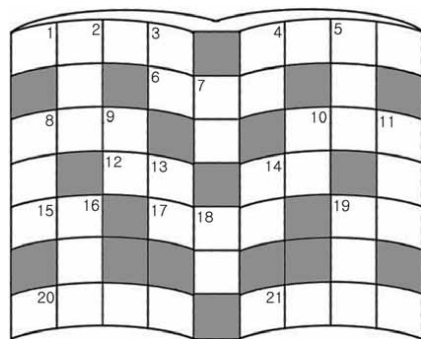
■ 스도쿠문제

		3	8		9			
	5		2		7		1	
7					1			6
	8	7		5			2	1
			1		2			
2	1			8		7	5	
5			4					7
	3		7		8		9	
		2			9	1		

■ 스도쿠정답

6	5			7				8
		8				9		5
	7		8		5		3	
		2		6		8		
3			1		9			7
		7		4		2		
	6		9		7		1	
7		5			3			
1				5			8	9

■ 낱말문제



■ 가로열쇠

01. 그때그때 처한 형편에 따라 알맞게 일을 처리함. 04. 젊었을 때 겪는 고생. 06. 사람이나 화물 따위를 실어 나르는 데 쓰는 비행기. 08.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윈 자식. 10. 현미경이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작

은 생물. 12. 한 쪽으로만 손가락에 끼게 된 가락지. 14. 서로 의논함. 15. 남에게 전사로 주는 물품. 17. 트집을 잡아 시비하려 드는 듯한 투. 19. 밝고 환함. 20.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 21. 바닷가에 있는 넓고 큰 모래밭판.

■ 세로열쇠

02. 일정한 기준 치수에 맞추어서 대량으로 미리 지어 놓은 옷. 03. 버리려 따위의 이삭이 뻗. 04. 맨 처음으로 비롯되는 시기. 05.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고생하며 공부하는 학생. 07. 소나무의 아래. 08. 구경하는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배. 09. 생선을 소금에 절인 반찬감. 10. 듣는 사람이 감동할 만한 가혹한 얘기.

11. 술, 차 따위를 파는 영업을 속되게 이르는 말. 13. 일러서 시킴. 14. 둘 이상을 맞대어 봄. 16. 물건 값이 오르는 일. 18. 숨겨 두고 혼자만 쓰는 좋은 방법. 19. 화학 섬유로 만든 실.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풀 다음 가운데줄을 세로로 읽으면 책 제목이 됩니다.

